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삼위일체 하나님

누신 것이지요. 그 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행 13:33, 히 5:5), 성령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요 15:26, 갈 4:6). 마치 분신을 만들어 내듯이 영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경작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역할은 다르지만 근본 하나로서, 마음도 생각도 능력도 하나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질서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느끼고 원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원하시지요. 역으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쁨이나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대로 느끼십니다. 그런데도 세 분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한 분 한 분의 성품이 구별되며 역할도 다릅니다.

분명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신성적인 면이 더 강해 신(神)적 위엄과 공의가 두드러집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인성(人性)적인 면이 더 강하므로 자상하고 섬세하며 자비와 긍휼의 측면을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지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품이 구별될 뿐 아니라 뚜렷한 질서 가운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 다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은 그 다음이 되어 성부, 성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한 사역 또한 함께 이루어가십니다. 각각의 역할을 정확히 감당하심으로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작의 섬리과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부, 성자,

특별히 성령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분리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처럼 분리된 신성령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개인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부지런히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는 애용하시며 회개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롬 8:26). 이와 함께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과 각종 은사들을 주셔서 능히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 첫째로, 사랑이어야 하고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어야 하며 셋째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넷째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십자가의 도』 책자 참조). 예수님은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품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돼 난 것이 아니므로 원죄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으셨지요.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불순종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 경작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실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자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 죄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지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품이 구별될 뿐 아니라 뚜렷한 질서 가운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 다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은 그 다음이 되어 성부, 성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특히 성령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분리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처럼 분리된 신성령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개인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부지런히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는 애용하시며 회개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롬 8:26). 이와 함께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과 각종 은사들을 주셔서 능히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 첫째로, 사랑이어야 하고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어야 하며 셋째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넷째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십자가의 도』 책자 참조). 예수님은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품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돼 난 것이 아니므로 원죄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으셨지요.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불순종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 경작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실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자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 죄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지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품이 구별될 뿐 아니라 뚜렷한 질서 가운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 다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은 그 다음이 되어 성부, 성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흐르는 주님 사랑 '아리랑'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부르고 연주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리랑이 '부르기 쉽고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말한다. 여러 분야의 음악가들에 의해 다양한 장르로도 재탄생되고 있다. 전 세계의 유명 뮤지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으며, 얼마 전 세계 무대에 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아리랑을 편곡한 오마주 두 코리아로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아리랑이 찬송가로 불리고 있다. 이 곡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들 마음에 감명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만민중앙교회에서도 아리랑을 부른다. 성도들은 이 곡을 부를 때 매우 행복해한다. 아름다운 멜로디에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사로 담겨 있으니 아리랑을 부를 때 성도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까닭이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아리랑' 찬송가에 실리다
구전되어 온 순 우리말 민요 아리랑은 19세기말 호머 헬버트(1863-1949) 선교사가 1896년 서양식 오선지에 처음 채보(採譜: 곡조를 듣고 악보를 만들)함으로 외국에 알려졌다. 미국 연합장로교회에서 발간한 찬송가집에는 <Christ, You Are the Fullness>라는 제목으로 아리랑이 수록돼 있다(사진).



미국 칼빈대학의 버트 폴먼 교수는 아리랑 멜로디에 대해 찬송가로 만들었다. 그는 찬송가편찬위원회에 직접 작사한 찬송가 아리랑을 제출해 당시 후보곡만 해도 3천여 곡이었으나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모인 편찬위원회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그들이 아리랑을 선택한 이유는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었다.

'아리랑' 노랫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 노래 아리랑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깊이 들어 있다. 한국인이란 아리랑을 부르면 저절로 감흥이 일 것이다. 아리랑을 인류 최고(最古)의 찬송가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아리랑의 노랫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랑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아리랑을 불러보자.

***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구전으로만 전해온 아리랑은 연명으로 인해 '알이랑'이 '아리랑'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벨엘의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은 '엘'이라는 단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한다. 곧 '알'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랑'은 '함께'라는 뜻으로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생의 여정을 함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발난다**
이 말은 약담이나 저주가 아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란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말한다. 곧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십리도 못가서 발발이 나서라도 더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는 나의 품으로 되돌아오라는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리랑

아리랑 - 아리랑 - 아라 - 리 - 요 - - -

아리랑 - 고 - 개 - 에서 - 우리 주님 만났네

행복이
우리 주님 만나면
기쁨이 넘쳐요 - - -
축복이

우리 주님 만 - 나 - 면 - 천국에 가요

음이다. 즉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노래인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불러야 할 사랑의 노래이다.

***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이 노랫말은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곧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한다. 고린도후서 7:10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했다. 우리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향해 아리랑을 불러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 하나님(딤후전 2:4)의 마음을 생각하며 영혼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외 모시는 길

광명
디지털단지 오거리
7호선 남구로역
한신 IT타워
4호선 디지털
8호선 디지털
9호선 디지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안양
시흥대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찬양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대학·기관·청년 배움 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아동부) 3:00 PM
다시 열매지기교회 9:00 P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한 정기독서 우송료인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원본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상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September
새벽 이슬처럼 축복의 은비가 내리는 9월...
GCN 프로그램으로 가을의 시작을 함께 아세요!
위상영 및 인터넷 전화 1577-2073

주요 프로그램 (Program)
창세기 광학
2011 생명의 말씀(연말 특강) N
기관장 교육
특선명화(역사비밀)